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2009년 7월 4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정태준 요셉, 박은영 마리아
다음주 독서: 신태영 알베르토, 정나미 모니카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정리 및 성당 문단속: 사목위원

+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1045
봉헌금: 1 차, \$ 152
2 차, \$ 302
매일미사: \$ 15
감사헌금: \$ 500 (나성인,강희정)
캠피비: \$ 1660
캠프 잔여물품 판매: \$ 48
반자회고기판매: \$ 90
합계: \$ 3812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월 17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7 월 10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솔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난 교우였던 부친 김제준 이냐시오와 모친 고 우르술라 사이의 장남이었습니다. 16세 때인 1836년 모방 신부에게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술한 고생 뒤에 마침내 사제품을 받습니다. 1845년 8월 17일 상하이 인근의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를 주교가 집전한 서품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즉시 8월 31일에 조선 입국을 시도합니다. '라파엘 호'라 명명한 작은 목선으로 서해 횡단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1845년 10월 12일 충청도 나바위 인근 바닷가에 상륙하였습니다. 이후 선교 활동에 힘쓰며 선교사들의 입국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듬해 6월, 서해를 통한 뱃길을 알아보려 백령도 부근으로 갔다가 관헌에 체포됩니다. 수차례 문초와 회유를 받았지만 끝내 변치 않았습니다. 마침내 군문호수형을 받고 한강 백사장에서 순교합니다. 사제 생활 1년 1개월 만인 1846년 9월 16일의 일이었다고 당시 나이 26세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첫 사제였기에 성인으로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첫 사제답게 사제기에 성인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그토록 어렵게 사제가 되셨지만 기꺼이 교회의 거름으로 자신을 바쳤기에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 1 독서> 역대기 하권 24,18-22 <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

<제 2 독서> 로마서 2 서 5,1-5 <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

회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 마태오 10,17-2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시작: 287 봉헌: 514 성체: 501 파견: 463

† <생명의 말씀>

매일 순교의 삶을 사는 신앙인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다.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는(1821-1846) 하느님을 ‘임자’로 불렀다. 그는 하느님은 세상과 인간의 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세상에 난 보람이 없다고 신자들에게 가르쳤다. 1821년 충청도 솔미에서 태어난 성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신앙심과 총명함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최양업, 최방제와 함께 1836년 12월 마카오로 떠난다. 인고의 세월을 잘 견디고 1845년 8월 17일 상해에서 사제품에 오른다. 김대건 신부는 그해 10월 12일 귀국하여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846년 6월 5일 관헌들에게 체포되었다. 40여 차례의 혹독한 문초를 받고 9월 15일 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어 다음날인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그의 나이 26세였다.

그는 사목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실천했고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봉헌했다. 김대건 신부는 사형 집행 전 큰 소리로 마지막 설교를 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찾으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설교가 끝난 후 관리들은 김 신부의 웃웃을 벗기고 두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는 물을 뿌리고 흰 회를 발랐다. 무릎을 꿇리고 밧줄 한 가닥으로 머리칼을 동여매고 머리를 하늘로 향하게 했다. 그때 김대건 신부는 태연하게 “자, 이렇게 하면 나의 목을 쉽게 자르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던 기백과 용기는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라고 하신다.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배척을 받고,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박해와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왜 신앙인은 박해를 당하는가? 세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는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따라서 죄와 어둠의 세력은 빛을 거부하고 두려워한다. 어둠의 행위가 빛속에서 낱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 자체가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순교는 본래 증거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길이며 동시에 순교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날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옛날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순교의 삶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훌륭한 순교이다. 어쩌면 현대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과거의 순교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신앙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 신앙인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다.

“순교자 김대건 사제와 한국의 순교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알려드립니다>

❖ 장기철 스테파노 신정혜 세레나 부부께서 어제 둘째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두분 가족께 축하드립니다.

† <빛과 소금>

나는 왜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하나?

오경환 프란치스코 신부 | 인천교구 원로사목자

나는 1969년에 김수환 추기경을 처음 만난 후 서울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비교적 자주뵈게 되었다. 추기경의 강론도 들었고 대화와 관찰뿐 아니라 남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1968년에 서울 교구장으로 임명된것은 한국 천주교회와 한국사회가 받은 크나 큰 은총이고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에 1970년대 초와 1990년대 초 사이 20년은 매우 어두운 시대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하여 억압되고,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체포되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였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서울교구장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적절하게 수행하셨다. 추기경은 시대가 요청하던 역할을 알아차리셨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수행하셨다. 모두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던 1971년,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 명동성당 성탄자정미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독주를 비판한 강론은 단번에 김수환 추기경을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국가적인 옹호자로 떠오르게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의 예언자적 발언, 인권을 옹호하는 발언은 계속되었는데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1987년 6월 10일 규탄대회를 마치고 경찰에 밀려 명동성당으로 피신한 대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추기경의 어조는 단호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경찰병력 투입을 통보하자 김수환 추기경은 “학생들을 체포하려면 먼저 나를 밟고, 그 다음 신부와 수녀를 밟고 지나가시오”라는 말로 막아섰다.

추기경은 언제 어떻게 발언해야 되는지에 대하여만 고민하신 것이 아니었다. 정부의 압력과 응해공작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교회 일부의 반대와 비난은 감수하기에 더욱 힘든 것이었다. 심지어 그를 추기경 자리에서 끌어 내리기 위한 연판장이 돌기도 했고, 그가 주교로서 부당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고 나아가서 선교에 해로운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비난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녔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계속 걸어갔다. 젊은 신부들이 결성한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각종 시국 사건에 대하여 비판적 발언을하고 때로는 거리시위도 하여 교회 내에서 찬반 논란이 격렬했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그들의 명동성당 시국기도회를 막은 적이 없다.

나는 그 당시에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의 문서<사목현장>과 여러 교황의 사회회칙에 담겨있는 가톨릭 사회교리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사회교리의 토대는 인간은 지성과 자유와 양심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받아야 하고 그 존엄성에 기초한 기본권은 침해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목현장>은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의 구원이 요구할 경우에, 정치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76항)라고 하면서 교회의 비판적 발언을 허용한다.

김수환 추기경은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당시에 서울교구 교구장이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반대로 행동하는 분이 교구장이었다면, 한국 천주교회는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을 것이고 민주화는 늦어졌을 것이다.